

## 새내기라면 꼭 알아야 할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18	1/19	1/20	1/21	1/22
1차 수시 신입생 트랙 설명회 (1.15~1.29)				
1/25	1/26	1/27	1/28	1/29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 (수시, 1.18~2.5)				
2/15	2/16	2/17	2/18	2/19
				정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23	2/24	2/25	2/26	
신입생 '영어커뮤니케이션' 반배치고사 (2.22~2.24)			신입생 수강신청일	
2차 정시 신입생 트랙 설명회 (2.19~3.5)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 (정시 및 전체 학부모, 2.22~2.26)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 연장 시,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은 1팀 5명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기초학력 강화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않습니다.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새내기를 위한 소소한 대학생활 Q&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을 보내고 드디어 한성대학교에 합격한 상상부기.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삼삼오오 동기와 함께하는 대학생활을 꿈꿨던 상상과 달리, 현실 속 코로나19는 친란한 대학생활의 발목을 잡는다.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학교 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준비하면 할수록 막막해진다. 가장 궁금한 질문을 모아 신 기자가 직접 답했다. 대학생활을 즐겁게 시작하고 싶은 새내기라면 기사에 주목하자.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Q. 동기와 친해지고 싶은데 학교를 가지 않아서 걱정이예요. 친구를 만날 기회는 없나요?

A. 가장 먼저 동기를 만날 기회는 신입생 캠퍼스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수시 신입생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정시 신입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5명이 한 팀을 이루고 매일 3팀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신청이 가능한 단과대학이 나누어 있으니,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Q. 코로나19로 등교가 어려운 지금, 온라인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걱정이 많은 새내기는 단톡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단과대학에서는 전체 신입생을 조대한 단톡방과 소규모 단톡방을 개설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단톡방은 선배 1~2명과 신입생 10명 이내로 구성됐기 때문에 부담 없이 새로운 친구와 교류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 학식 추천 등 다양한 사담 및 질문도 가능합니다.

Q. 대학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A. 많은 학우가 동아리를 통해 추억을 만듭니다.

우리학교 동아리는 공연예술, 종교, 학술, 체육, 평면예술, 취미봉사 등 6개의 분과로 나뉘며, 총 38개가 있습니다. 같은 분과라고 비슷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진행하는 행사나 모임, 활동 등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뭘 하는지 알아보고 지원하는 게 좋겠지요? 한성 e-class에 들어가면 동아리 홍보 영상과 책자 파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동아리를 제외한 학내 단체 활동은 없나요?

A. 학생회와 프레스센터 등이 있습니다. 학생회에는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학부(과) 학생회가 있습니다. 학우를 대표하는 기구인 학생회는 3월 초 신입부원을 뽑습니다. 이때, 신입생의 경우 단과대학과 학부(과) 학생회는 해당 트랙 기초 과목을 듣는 학우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프레스센터는 학내 언론기구로서 신문사, 영자신문사, 방송국이 있습니다. 각 사가 매 학기 신입부원을 뽑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도전해보세요. 다양한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성대신문  
웹사이트로 만나보세요

### 기자사령

임  
부편집국장 신혜림(상상력)  
부장 기자 김선우(IT 1)  
이슬비(인문 1)  
조정은(인문 1)

###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겸주간 전신중  
편집국장 박희연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집안으로 온 대학교, 온라인 대학생활 기본백서

이슬비 기자  
lsb@hansung.ac.kr

대학생활의 첫 시작을 앞둔 새내기 상상부기는 요즘 바쁘다. 수강신청, 온라인 강의, 과제, 비교과 프로그램까지 알아야 할 것도 준비해야 할 것도 많다. 온라인 대학생활도 낯선데, 강의와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곳이 없는 새내기를 위해 이 기자가 준비했다. 바로 '온라인 대학생활 기본백서'. 강의, 기자의 설명부터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선배의 노하우까지. 눈 크게 뜨고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새내기 상상부기의 알찬 학교생활 준비는 끝날 것이다.

## 야, 너도 수강신청 마스터 할 수 있어

신입생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게 바로 수강신청이다. 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수강신청은 2월 26일에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우리학교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내 교무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강의는 최소 6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전공기초부터 일반교양까지 선택할 수 있는 강의가 다양하다. 단, 새내기는 전공기초와 교양필수 강의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1학년 교양필수 강의는 '사고와 표현', '영어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을 위한 코딩 첫 걸음', '디자인 Thinking', '삶과 꿈' 과목이다. 두 과목은 1학과 2학기에 자동으로 신청된다. IT공과대학, 상상력인재학부는 '영어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을 위한 코딩 첫 걸음',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디자인대학은 '영어커뮤니케이션', '디자인 Thinking', '삶과 꿈' 과목을 1학기에 듣는다. 2학기에 남은 교양필수에서 안 들었던 과목을 듣게 된다.

'영어커뮤니케이션'과 '사고와 표현'은 각 두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학교에서 학기 마다 모든 단과대에 일괄 배정해준다.

교양필수 과목 중에서도 직접 수강신청 해야 하는

과목이 있으니 바로 '글로벌 시민의식 및 사회봉사'다. 졸업 전까지는 2학점을 꼭 이수해야 한다. 글로벌 시민의식은 '문화다양성과 문화 간 대화', '글로벌 협력과 국제활동' 등이 있고, 사회봉사는 '사회봉사 I', '사회봉사 II'로 나뉘어 있다. 글로벌 시민의식은 한 강의당 2학점으로 한 학기만 들어도 되지만, 사회봉사는 한 강의 당 1학점이라 두 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새내기는 교양필수를 제외한 원하는 전공기초와 선택필수교양을 각 최대 2과목씩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선택한 강의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수업계획서를 조회해보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교무탭을 클릭하고 시간표 및 수업계획서조회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수업정보, 교수정보 뿐만 아니라 신청하는 강의가 전면 온라인 수업인지 블렌디드 러닝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학교는 블렌디드 러닝을 기반으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 정확한 수업형태를 알고 싶다면 '강의실 및 교시'와 수업계획서를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 언택트 대학생활에도 강의는 퍼펙트하게

수강신청이 끝났다면, 첫 수업시간인 오리엔테이션에 집중하자. 강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과제는 어떻게 내고 성적은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 한 학기동안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시간이다. 무엇보다 강의가 자신과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자신과 맞지 않는 강의라고 생각한다면 오리엔테이션 직후에 수강정정 기간에 다른 수업으로 바꿀 수 있다. 1학기 수강정정은 3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다. 물론 자리가 비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 처음에 수강신청을 신중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과 강의를 어떻게 따라갈지 궁금하다면 가장 먼저 e-class를 열어보자. e-class는 우리 학교의 온라인 강좌 수강 시스템이다. 홈페이지 맨 아래쪽 탭에 보면 중간에 한성 e-class가 보인다. 여기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과제, 수업계획서, 온라인 출석부 및 공지사항까지 거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녹화 강의와 실시간 강의가 있다. 녹화 강의는 말 그대로 미리 녹화해둔 강의다. 정해진 기간 내에 듣기만 하면 출석처리가 된다. 그렇다고 '출석 처리일 직전에 몰아서 수강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주치의 출석 처리 마감일 새벽에는 많은 학생이 서버에 동시에 접속하기 때문에, 과다 접속으로 서버에 문제가 생겨 강의를 다 이수하지 못할 수 있다. 강의를 미루지 않고 성실히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시간 강의는 실시간 화상채팅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웹엑스(Webex)로 진행되지만, 교수자에 따라 ZOOM 등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교수자가 걸어둔 링크를 통해 실시간 강의를 들으면 출석처리가 된다. 지각하지 않도록 수업시작 전에 미리 들을 준비를 해두는 센스를 발휘하자.

## 온라인 시험 A+를 위한 '올바른 자세'

수업은 모두 성실히 들었는데 성적은 C를 뿌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과제와 시험을 잘 챙겨야 한다. 강의의 수업계획에 따라 다르지만, 전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과제와 시험은 대부분 e-class를 통해 진행된다.

과제는 제출 기간까지 지정한 형식으로 e-class에 제출하면 된다. 학생이 직접 과제 결과물을 파일로 제출하거나, 게시된 퀴즈를 풀어서 답을 등록하는 과제가 많다.

온라인 시험의 경우 진행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거나 과제로 대체하는 방식과,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수자의 감시·감독 하에 진행되는 방식 등이다. 오픈북 시험과 과제 시험은 지정된 기간 내에 결과물을 교수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화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험은 조금 더 복잡하다. 정해진 시험 시간에 컴퓨터로 시험을 치르는데, 동시에 휴대폰으로 화상 채팅방에 접속해야 한다. 교수자는 화면 밖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부정행위 감시를 철저히 한다. 학생은 지정된 자세와 위치에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보통 카메라에 신분증을 보여주고, 손이 키보드 위에 올라가있게, 자신의 상반신과 컴퓨터 화면이 동시에 보이게 해야 한다.

화면이 꺼지거나,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교수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주은(인문 1) 학생은 "재난 문자 알림을 꺼두고 비행기 모드를 실행하면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바뀌어 시험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배터리 방전에 대비해 휴대폰을 충분히 충전해둔 상태로 시험을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성실한 상상부기가 졸업한다! 비교과 포인트

출석, 과제, 시험까지 교과 과정 외에도 아직 한 가지가 더 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해도 이것을 빼먹으면 졸업을 못할 수 있다. 바로 비교과 포인트다. 비교과 포인트는 학내·외에 있는 다양한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로, 졸업 요건 중 하나다. 한 학기 최대 200포인트씩 획득할 수 있고, 총 800포인트를 모아야 졸업할 수 있다.



비교과 포인트는 한 번에 몰아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가장 많은 포인트를 주는 활동도 제공하는 비교과 포인트가 100포인트를 넘지 않는다. 졸업까지 800포인트를 모으려면 여러 개의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비교과 포인트를 주는 활동과 프로그램은 어디서 찾을까? 가장 쉽게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는 HS e-포트폴리오(이하 HOPE)를 활용하면 된다. HOPE는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학업과 진로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교내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고 신청 할 수 있다. 홈페이지 하단 배너 중간에서 HOPE를 확인할 수 있다.

비교과 공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 한성 탭을 클릭하고, 한성공지에 들어가면 비교과 공지 게시판에 확인할 수 있다. 게시판에는 비교과 포인트를 주는 다양한 학내 활동과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다. 이 학우는 "비교과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비대면으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참가하면 비교과 포인트도 얻을 수 있고, 대회 참가로 장학금도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학교 출입이 어려운 지금은 외부 행사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 학내에는 온라인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었다. 나지영(교육혁신원) 팀원은 "원래 운영되던 다양한 특강이나 워크숍 등이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으로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학생이 온라인으로 비교과 포인트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HOPE와 비교과 공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비교과 프로그램을 눈 크게 뜨고 찾아보자.



16,780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 1,785개 공유 1,222회

박현규 기자  
pizzadragonheart@hotmail.com

# 기자재·소프트웨어 없으면 빌리자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새학기.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가 없어서 수업이 힘든 학생이라면 아래를 주목하자. 학교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할인 및 무료 지원, 기자재 대여 등을 이용한다면, 다시 원활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수업을 들으며 가장 자주 쓰는 소프트웨어는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Microsoft 오피스 프로그램이다. 우리 학교는 오피스365를 학생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 하단 배너에서 '오피스365'를

누르면, 계정을 등록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계정당 최대 5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1TB용량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는 한성대학교 전용 스토어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전용 스토어는 홈페이지 IT서비스 탭에서 윈도 10 업그레이드지원 안내글을 찾으면, 글 하단에 있는 링크로 접속할 수 있다. 오피스365와 마찬가지로 계정을 만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강의를 들을 장소가 마땅치 않을 때는, 우리학교 전산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 실습실을 이용할 때는 사전예약이 필수다. 사전예약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학교에서 단체문자로 안내 메시지를 전달하면, 함께 적혀있는 구글 폼 링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실습실은 우리학교 탐구관 2층 기자재실에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강의를 들기 위해서는 학생증과 본인 소유 이어폰을 지참해야

한다. 하루에 최대 100명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번호표를 뽑고 순번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14,705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 1,517개 공유 1,173회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성적 올리고 지갑 지키는 장학금 받자

대학생활을 위한 등록금, 자격증과 어학 점수를 위한 학원비까지... 새내기 상상부기의 얽힌 지갑을 메꾸기 위해, 조 기자가 우리학교의 '한성인재장학금'과 '교육장학금'을 소개한다.

##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한성인재장학금

우리학교 한성인재장학금(이하 성적장학금)에는 최우수한성인재장학금과 우수한성인재역량장학금이 있다. 최우수한성인재장학금은 수업료의 70%가 감면되며, 우수한성인재역량장학금은 50%, 30%가 차등 감면된다.

교내 성적장학금은 한성인재포인트에 따라 학우에게 지급된다. 한성인재포인트는 수강한 과목의 성적 포인트인 비교과포인트와,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얻은 포인트인 비교과 포인트를 합해서 계산한

다. 각각 90%와 10%의 비율로 반영된다.

1학년의 경우 성적장학금을 받는 비율은 각 단과대학별 전체 학우의 10%다. 그 중에서 수업료의 70%를 감면받는 학우의 비율은 14%, 50%를 감면받는 학우는 16%다. 30%를 감면받는 학우는 70%다.

더 많은 수업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비교과 포인트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평균성적이 똑같이 우수한 학우라면 더 많은 수업을 들은 학우가 장학금을 받는다.

그렇다고 10%가 반영되는 비교과 포인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성적장학금을 받는 학우는 대부분 비교과 포인트 200점을 모두 채워서 만점을 받는다. 비교과 포인트는 한 학기에 최대 200점까지 인정된다.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비교과 포인트 점수가 낮으면 성적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

##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장학금

우리학교에는 재학생의 경력개발을 돕는 장학금 제도, 교육장학금이 있다. 교육장학금은 1학년은 30만 원, 2학년은 20만 원, 3, 4학년은 50만 원으로, 재학 기간 내에 총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전 학년에서 남은 돈은 전부 다음 학년으로 이월된다. 예를 들어 1학년에 돈을 아예 쓰지 않았다면, 2학년에는 새로 지원하는 장학금 20만 원과 1학년 때 쓰지 않은 돈 30만 원을 포함해 총 50만 원을 쓸 수 있다.

외부학원 수강료의 경우 실제 학원 등록비용의 3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력개발에 해당하는 외국어시험, 자격증 등의 경비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제공받을 수 있다. 교내에서 시행하는 프로

그램의 경우 등록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장학금 신청내역은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 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육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증, 영수증, 출석확인서, 수료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1학년은 진로상담 또는 진로심리검사, 지도교수 상담을 받은 후 1학년 2학기부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성적장학금과 교육장학금 뿐만 아니라 우리학교에는 재학생을 위한 다양한 장학금이 존재한다. 한성복지장학, 형제지매장학 등 특별장학, 가사곤란자를 위한 한성복지장학과 긴급경제곤란 지원 장학 등이 있다. 우리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에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정보가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있는지 들어가서 확인해보자.

16,043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 1,981개 공유 2,019회

박현규 기자  
pizzadragonheart@hotmail.com

# 자기개발도 집에서 하자

이제 막 대학생활을 마스터했다고 느낀 새내기 상상부기. 이참에 독서부터 어학, 자격증 그리고 국제교류까지 꿈꿔본다. 아뵘, 지금은 해외는 커녕 외출도 못 하지 않나. 새어나가려는 의욕을 붙잡기 위해, 박 기자가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자기개발 프로그램을 모았다.

## 홈페이지에서 듣는 어학·자격증 강의, e-learning

우리학교는 어학 점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e-learning 프로그램이다. 우리학교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자료검색 배너에 보이는 e-learning을 클릭하면, 해커스 어학·공인중개사, IT GO, 에듀스파, 사이버학습관 등에서 만든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다.

e-learning에는 토익, 토플, 텡스 등 여러 영어 강좌와 중국어, 일본어를 비롯해 스페인어, 독일어와 같은 특수 외국어까지 다양한 어학 과목이 준비돼 있다.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9급 및 7급 공무원 과정을 비롯해 한국어능력시험, 국어능력시험, 각종 IT 관련 강좌까지 제공하고 있다.

토익과 토플은 강의를 다 듣고 무료 모의고사를 볼 수 있다. 모의고사를 응시하면 최대 10pt의 비교과 포인트도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학술정보관, 전자책도서관

학술정보관은 국내서적 약 4만 7천여 종, 해외서적 약 1만 8천여 종을 전자책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번에 10권을 대출할 수 있고 대여기간은 15일이다.

전자책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을 때는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창 바로 아래에 보이는 e-book을 클릭하고, 맨 위에 보이는 한성대학교 전자책도서관에 들어가면 된다. e-book 탭에는 국내 전자책 데이터베이스 외에도 해외 전자책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아래의 국외 부분을 살펴보자.

학술정보관은 전자책도서관 외에도 RISS 통합검색, e-journal 등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돼 있다. RISS 통합검색에서는 각종 국내 논문을 무료로 읽고 이용할 수 있다.

e-journal에서는 ScienceDirect, Taylor & Francis 등 해외 학술지 논문 사이트를 열람할 수 있다.

## 랜선 너머로 만나는 외국인 학우, 단기어학연수·GPM

우리학교는 2020학년도 2학기부터 온라인 국제교류 사업으로 온라인 단기어학연수와 Global Pal & Mentoring(이하 GPM)을 도입했다.

온라인 단기어학연수는 우리학교와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온라인 어학 수업을 듣는 제도다. 참가비는 400\$이며, 90%이상의 출석률을 기록하면 450,000원을 장학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비교과 포인트도 최대 100pt까지 받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다.

GPM은 약 12주 동안 화상채팅을 통해 참가자가 교류대학 학우와 1대1로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단, 외국 학우와 1대1로 대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회화능력이 요구된다.

우리대학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되도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유지할 계획이다. 온라인 단기어학연수와 GPM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우는 대면 파견프로그램에 우선 참가기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두 프로그램 모두 1학년 1학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앞으로 있을 파견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다면, 1학년 2학기에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먼저 실력을 쌓아보자.



3,124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 304개 공유 1,021회

# 상담으로 마음 돌보기

계속되는 집콕 생활, 새내기 상상부기의 우울지수는 높아만 진다. 고민이 생겨도 이야기를 나눌 친구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 상담을 망설이는 새내기 상상부기를 위해 김 기자가 직접 우리학교 학생상담센터의 서신영 상담사 선생님을 만났다. 김선우 기자 rdjrrtf@naver.com

집 안에만 있으니 외롭고 우울해요. 상담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우울감의 정도에 따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감이 지속되고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내 학생상담센터 혹은 사설 상담센터 등을 이용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관계나, 대학생활을 상상하면 막막해요. 이런 것도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대학생활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대인관계의 폭도 넓어지고 낮선 대학생활도 적응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고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 시기에 자신에 대한 혼란을 줄이고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사소한 고민도 관찰합니다.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 상담센터들 찾아주세요.

낯선 어른에게 상담 받는 것이 무서워요.

상담센터에선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래상담은 동기, 선배 등 또래에 의해 진행되는 상담으로, 상호적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되는 상담이라 학교생활에 대한 구체적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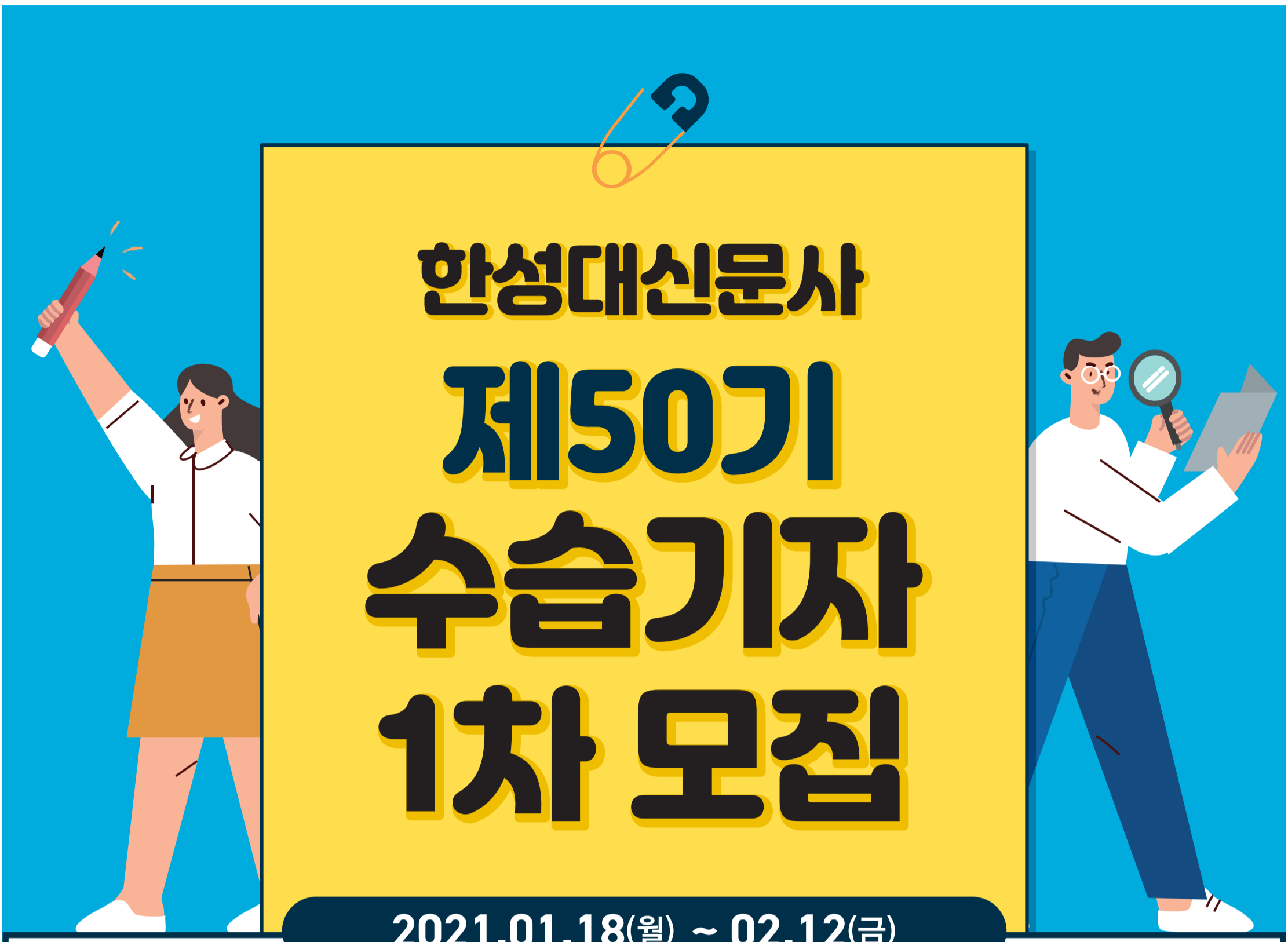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상담을 받으러 학교에 가기 무서워요. 온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센터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서도 접수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담을 원할 경우, 온라인 신청서에 화상 및 전화상담 등의 상담방식을 기입하면 됩니다. e-class나 카카오톡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담당 상담사와의 합의 하에 상담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코로나블루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울한 감정에는 각자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화상통화를 통해 얼굴을 보고 정기적으로 소통을 하거나, 사람이 붐비지 않는 공원에 잠깐 산책을 하는 것도 우울함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124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댓글 304개 공유 1,021회



2021.01.18(월) ~ 02.12(금)

**모집대상**

- 본교 재학생(학번/전공/성별/주·야간 무관)
- 4학기 이상 활동 가능한 본교 재학생

**주요활동**

- 아이템회의
- 취재원 컨택
- 인터뷰 및 사진 촬영
- 레이아웃 디자인
- 초고 작성 및 퇴고
- 교정 및 조판
- 배부 및 기사 업로드
- 평가회의

**지원방법**

- 한성대신문사 웹사이트(www.hansungnews.com) 또는 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이메일(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활동기간**

- 입사 후 4학기 동안 (2021년 3월~2022년 12월)

**활동혜택**

- 학기당 비교과 포인트 100pt 지급
- 원고료 및 활동비(장학금) 지급
- 정기자 진급 시 명함 및 기자증 발급
- 개인 사무실 책상 및 PC 제공
- 사물함·복합기 등 무료 사용
- 교내·외 기자교육 프로그램 지원
- 편집국장 진급 시 총장공로상 추천
- 퇴임 시 활동인증서 발급

**문의사항**

-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 박희연 편집국장 010-3412-1839
-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 페이스북 메시지 @hansungpresscenter